

이슈분석

2003년 노동시장 전망

안주엽·강승복*

I.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및 평가

◆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실업률 하락세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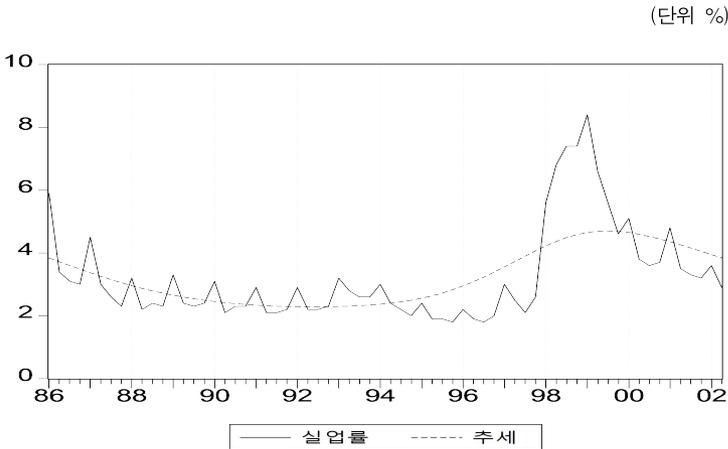
- 금년 상반기 내수부문이 주도하는 급격한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고용사정도 꾸준한 회복세를 유지
 - 2002년 2/4분기 중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2%대로 하락
 - 상반기 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기대비 2.2%나 증가(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상승하여 61.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업계수가 높은 내수부문의 급성장에 따라 취업자가 3.2%나 증가
 - 특히 금년 1/4분기 중 실업률이 당초 전망치¹⁾보다 훨씬 낮은 3.6% 수준에 머물러 당초 전망치를 3.0%로 수정²⁾
- 5월에 2%대로 떨어진 실업률은 6월과 7월에도 2.7%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실업자수는 626천명
 - 예상보다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되어 실제 실업률은 추세치보다 낮은 수준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jyahn@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1) 안주엽(「2001년 노동시장 동향과 2002년 전망」, 『매월노동동향』, 통권 제6호, 2002. 1, 10쪽, [그림 5]에서는 2002년 연 중 실업률을 3.5%, 1/4분기의 실업률을 4.5%로 전망.
 2) 4월의 수정전망(안주엽(2002. 6),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고용정책 방향」, 『매월노동동향』, 통권 제11호, 2쪽, <표 1>)에서 1월과 2월 중 실업률의 추세를 반영하여 연 중 실업률은 3.0%, 실업자수는 670천명으로 수정하여 전망.

◆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 취업자가 1/4분기 중 4.1%나 급증하고 2/4분기에도 2.4%(509천명)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 경기둔화기인 2001년에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경제위기 이전에는 1.7% 정도 수준
 - 이에 따라 지난 2/4분기의 취업자수는 22,186천명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1997년 2/4분기 21,382천명)을 완전히 회복
 -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취업자 증가는 건설업(10.9%, 175천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1%, 334천명)에 치중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33천명 감소

[그림 1] 분기별 실업률 추이(1986.1/4~2002.2/4)



- 1999년 60.5%까지 하락하였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1년 2/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 2/4분기에는 62.1%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62%)을 회복

◆ 노동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구조는 취약해지는 경향

- 금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와 실업감소 등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급격한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실업대책의 부분적 효과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원인

<표 1>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주요지표

(단위: 천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1/4분기	2/4분기
생산가능인구	35,362(1.5)	35,765(1.1)	36,139(1.0)	36,484(0.9)	36,706(1.0)	36,789(1.0)
경제활동인구	21,456(-1.0)	21,634(0.8)	21,950(1.4)	22,181(1.0)	22,024(2.8)	22,886(1.9)
경제활동참가율	60.7	60.5	60.7	60.8	60.0	62.2
취업자	19,994(-5.6)	20,281(1.4)	21,061(3.7)	21,362(1.4)	21,231(4.1)	22,198(2.4)
실업자	1,461	1,353	889	819	793	689
실업률	6.8	6.3	4.1	3.7	3.6	2.9
비경제활동인구	13,906(5.2)	14,131(1.6)	14,189(0.4)	14,303(0.8)	14,682(-1.7)	13,902(-0.5)

주: ()안은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용창출이 임시직과 일용직에 치중하는 등 고용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실업이나 청년실업 등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잔존하며 실업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인력수급 불균형도 지속
-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 1998년 이후 경제회복 및 실업대책 노력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5.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경제활동참가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인 47.9%를 밑돌고 있음.
- 장기실업자 비중은 제자리
 -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0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2~3% 수준 유지
 - 2002년 2/4분기에 장기실업자수는 16천명,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2.4%으로 나타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표 2>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 주요지표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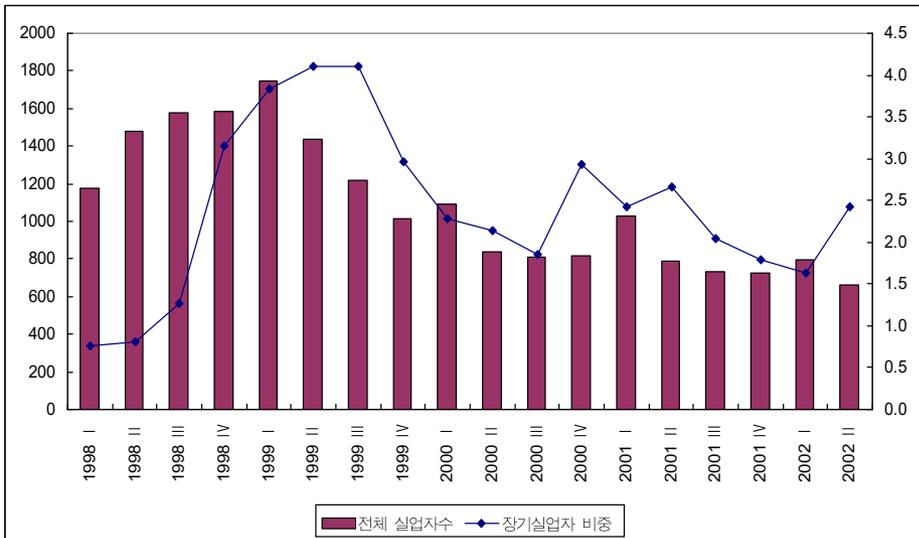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4	2/4
실업지수	255	313	612	537	374	360	380	298
(실업률)	(4.7)	(5.7)	(12.2)	(11.0)	(7.7)	(7.6)	(8.0)	(6.4)
경제활동인구	5452	5466	5035	4882	4885	4746	4778	4641
(경제활동참가율)	(47.9)	(47.9)	(45.7)	(45.1)	(46.1)	(46.3)	(47.3)	(47.1)

주: ()안은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분기별 실업자수, 장기실업자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최근 노동시장의 회복(실업률 하락과 임금근로 주도 취업자 급증) 속에서도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
 - 2002년 2/4분기의 고용창출(임금근로자 400천명 증가)이 임시·일용직에 치중(신규 임금근로자의 87.5%인 349천명)
 - 일용직 증가율(9.6%)이 임시직(2.8%)보다 두드러지며 이는 상반기 중 건설업의 갑작스런 호황에 따른 것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분기 48.3%에서 2/4분기에 47.7%로 하락

II. 2003년 노동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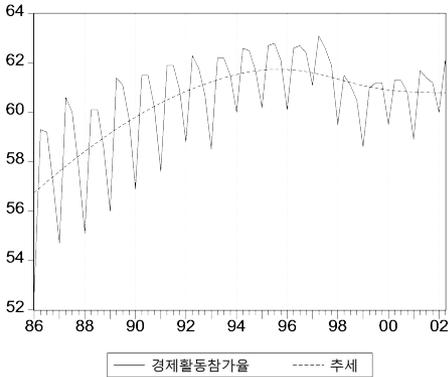
◆ 경기회복이 가속화되어 금년 하반기 실업률은 2.8%로 더욱 낮아질 전망

- 경기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

- 2001년 4/4분기 3.7%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은 2002년 1/4분기에는 5.7%, 2/4분기에는 6.3%로 높아져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 ※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6.8%에 이르고 연 중으로는 6.5%를 기록할 것으로 상향조정
 - 선행종합지수 역시 2001년 1월(133.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 5월에는 149.2를 기록하였으며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전망(연중 3.0%)에 따르면 하반기 중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노동수요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과 노사관계의 악화 가능성이 이를 증폭시킬 가능성도 존재
 - ※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가 노동수요의 감소로 나타나는 데는 다소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금년 하반기보다는 내년 초에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대미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미국경제의 침체 또는 교란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주식시장의 침체 가능성으로 경기회복속도가 급속히 하락할 경우에 노동수요 위축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년 하반기 실업률은 2.8%, 9월(또는 10월)에는 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당초 연 중 월별 최저수준의 실업률은 2.4%로 전망하였으나 7월의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농후
 -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망되며, 계절적 효과, 건설투자 감소, 민간 소비 위축이 발생하는 4/4분기에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4/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 최근에 안정되는 추세로 향후 경기변동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등락하지는 않을 것
 - 취업자 증가율은 상반기의 3.1%에서 하반기에는 2.0%로 점차 안정화될 전망으로 연 중 2.6%의 유래없이 보기도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
 - 실업률은 상반기의 3.2%에서 하반기에는 2.8%(627천명), 연 중 3% 미만(678천명)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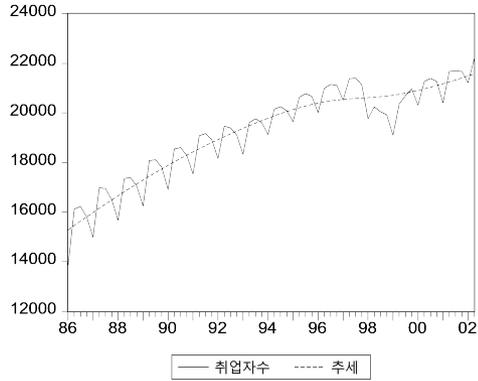
[그림 3] 분기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그림 4] 분기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표 3>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 노동시장 전망

	2001	2002			2003p
		연평균p	상반기	하반기p	
생산가능인구	36,484(0.9)	36,833(1.0)	36,746(1.0)	36,921(1.0)	37,203(1.0)
경제활동인구	22,181(1.0)	22,585(1.8)	22,430(2.2)	22,742(1.5)	22,913(1.5)
경제활동참가율	60.8	61.3	61.0	61.6	61.6
취업자	21,362(1.4)	21,908(2.6)	21,701(3.1)	22,115(2.0)	22,273(1.7)
실업자	819	678	729	627	640
실업률	3.7	3.0	3.2	2.8	2.8
비경제활동인구	14,303(0.8)	14,248(-0.4)	14,316(-0.9)	14,179(0.1)	14,290(0.3)

주:p는 전망치, ()안은 증가율.

◆ 2003년 실업률은 2.8%로 더욱 낮아질 전망

- 내년도에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
 - 6% 또는 그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대외여건 및 주식시장, 물가상승 가능성, 대통령선거, 노사관계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큼.
- 2003년도 연 중 실업자수는 640천명 선으로 금년보다 38천명 감소할 것
 - 단기전망을 위한 분기 노동시장 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연 중 5.7%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가정하여 2003년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를 전망기준치를 구하고 2002년 실적치와의 괴리보정 및 주5일제 확산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한 보

정전망치(전망기준치에서 취업자수는 0.3%, 경제활동참가율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를 최종전망치로 정하고 이로부터 실업률을 전망

- 경제활동인구는 1.5% 증가한 22,913천명에 이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0.3%포인트 상승한 61.6%에 이를 것
- 국민총생산의 안정적 성장으로 취업자수는 1.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계절적 영향으로 1/4분기에 3.5% 정도까지 상승하고 3/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Ⅲ. 노동시장 정책방향

◆ 인적자원개발 효율성 제고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 사전적 실업대책으로서의 적극적 고용대책과 사후적 실업대책을 적절하게 조화
 - 향후 최근의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external shock)이 없는 한 3% 미만의 낮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므로 사후적 실업대책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임.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초를 사전적 실업대책으로서의 고용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적자원관리 및 활용에 치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존재하므로 특히 고용가능성이 낮은 저학력, 저기술, 저숙련으로 특성지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표 집단적 실업대책은 견지하여야 할 것임.
- 사전적 실업대책으로 '재학생 인턴제'를 적극 활용
 - 노동수요의 구조와 기업의 채용방식이 급변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경향
 -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년층 인턴제는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졸업 후 실업상태에 돌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실업대책으로서의 인턴제보다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고용대책으로서의 '재학생 인턴제'를

강화하여야 함.

※ 대학생을 예를 들면, 3학년과 4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4학년 2학기 중 기업이 원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한 취업준비를 하도록 함.

- 이를 위해 방학집중(겨울방학의 상당부분을 여름방학으로 이동), 인턴과목 학점화, 일자리의 세계 등 취업관련 과목의 교양필수화, 취업정보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
- 인턴노동시장에서 발생가능한 수요·공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를 막기 위해서는 금전 등 직접지원보다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

○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정보의 연계와 공개를 통한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교육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이는 개인에게는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에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유발시킴.
-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분석결과를 교육수요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에 따르는 효율성의 저하를 최소화

※ 예를 들면, 매년 10월 졸업자 중 일정비율(약 10%) 또는 (전공의 개수)*500명을 표본조사하여 전공별 취업지수를 구축하고 이를 대학입시 이전에 공개하되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4~8년 뒤의 인력수급전망을 고려한 수정된 전공별 취업지수를 함께 공개. 이를 위해서는 학과분류표, 전공과 산업·직업행렬 연관표(Matching Table of Curriculum and Industry-Occupation Matrix), 취업지수 구성요소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청년층, 여성, 준고령 및 고령층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 향후 중장기 인구구조의 추이를 볼 때,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속하게 신장될 것으로 보이니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를 극대화하는 노동시장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여야 함.
-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에 애로가 되는 보육 및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파트타임근로에 대한 유인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 건강한 다음세대(Next generation)의 양성이 사회적 의무(social duty)라는 기

본인식하에서 보육시설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실의 확충, 보육교사 수급전망에 따른 교사양성체계의 구축, 교사자질의 제고를 위한 양성단계에서의 유인책이 필요

- 퇴직 또는 해고의 경우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적자원의 조기유휴화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퇴직 전 재계약을 통하여 퇴직 직전 또는 직후 파트타임 (part-time: 주당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예를 들면 주당 24시간) 또는 파트워 (part-week: 주당 3일 또는 주말근무) 등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고용안정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
- 고용가능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목표집단적 실업대책의 확충 및 내실화
 - 장기실업자, 실망실업자, 저학력 실업자 등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실업대책이 전달되어야 함.
 - 장기실업자 프로파일링을 고용가능성이 낮은 계층 모두에게로 확대하고 영국 청년층 실업대책인 Gateway를 원용한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되 최적의 고용가능성 제고 훈련과정(1년 과정)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
 - 자격제도의 시장성 분석(현재 용역과제 진행중)을 통해 훈련과정을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의 취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축
-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각종 차별관행을 제거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 표준근로계약 및 표준채용공고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되 사적계약을 존중하는 관행을 쌓아나갈 것
 - 행정비용이 높은 감독기능이 아니라 유인에 따라 기업의 준법정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
 - 사회보험에 사적보험의 논리를 적용하기보다는 부가급부(fringe benefits)의 형태로 인식하여야 하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 다만 효율적인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기반한 적정수준의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보험료 부담방식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

<부록 : 단기전망용 분기노동시장 모형>

○ 모형식

$$(1) r = c_{s0} + a_{sr}(-4) + [\beta_{s0}G + \beta_{s1}G(-1) + \beta_{s2}G(-2) + \beta_{s3}G(-3)] \\ + \delta_{s0}u + \delta_{s1}d1 + \delta_{s2}d3 + \delta_{s3}d4 + (\epsilon_s + c_{s1}\epsilon_s(-1))$$

$$(2) (1-\rho_L) \text{Ln}E = c_{e0} + a_{e}\text{Ln}E(-4) + [\beta_{e0}\text{Ln}Y + \beta_{e1}\text{Ln}Y(-4)] + \delta_{e1}d1 + \delta_{e2}d3 \\ + \delta_{e3}d4 + (\epsilon_e + c_{e1}\epsilon_e(-1))$$

$$(3) S = r * P$$

$$(4) E = \exp(\text{Ln}E)$$

$$(5) u = (S-E)/S$$

r = 경제활동참가율

E ($\text{Ln}E$) = 취업자수(로그값)

S = 경제활동인구

u = 실업률

$\text{Ln}Y$ = 국내총생산(의 로그값)

G =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변화(%포인트)

$d1, d2, d3, d4$ = 계절가변수(seasonal dummy variables)

P = 생산가능인구

•(-x) = 변수 •의 x계 시차(time lag)

○ 경제활동참가율 추정결과 (부표 1 참조)

- 실업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단기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0.29%포인트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1.59%포인트 상승
-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당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03%포인트 상승하며 장기적으로는 0.16%포인트 상승
-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누적적이지 않음(시차변수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음).
-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절효과(seasonal effects)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수 추정결과

-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단기적으로 취업자는 0.26%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도 0.26% 증가
-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 취업자수를 2/4분기와 비교할 때, 1/4분기에는 0.7%, 4/4분기에는 0.8% 취업자가 감소하는 계절효과가 존재

<부표 1>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추정결과

r		ln(E)	
상수	12.405(2.014)***	상수	1.748(0.526)**
r(-4)	0.815(0.033)***	ln(E(-4))	0.748(0.090)***
G	0.029(0.011)**	ln(Y)	0.280(0.048)***
G(-1)	-0.005(0.011)	ln(Y(-4))	-0.194(0.049)**
G(-2)	0.018(0.011)	d1	-0.007(0.004)*
G(-3)	-0.011(0.011)	d3	-0.001(0.002)
u	-0.293(0.050)***	d4	-0.008(0.005)*
d1	-0.149(0.189)	R ²	0.992
d3	-0.052(0.118)	\bar{R}^2	0.991
d4	-0.100(0.172)	DW	1.839
R ²	0.971		
\bar{R}^2	0.985		
DW	2.053		

주:()안의 수치는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계수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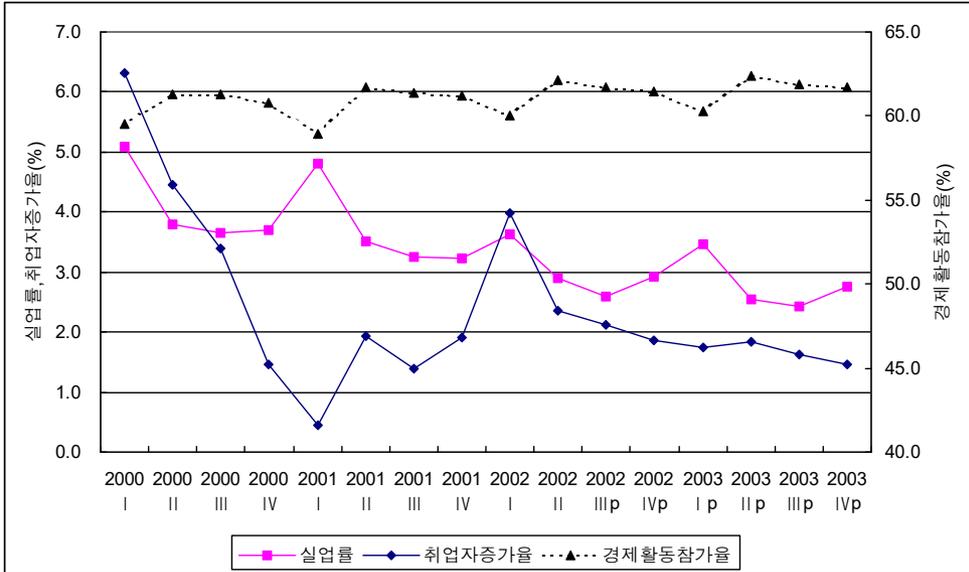
D1~D4는 계절가변수(seasonal dummy)로 2분기를 기준.

R²는 결정계수, \bar{R}^2 는 조정된 결정계수, DW는 더빈왓슨 통계량임.

○ 실업률 전망(그림 A, 참조)

- 2003년의 경제성장률이 5.7%라고 가정

[그림 A]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주:p는 전망치임.